

To Add New Values ..

WONT Story Begins

블록체인 기반의 선불포인트서비스

가상화폐... 왜 각국 정부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까요 ?



그건.

화폐주조, 신용창조 등



가상화폐가 태생적으로
금융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

그런데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국가를 대신해서
각 경제 주체에게
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!



누구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
격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합니다
아마도 가상화폐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!

자 그럼.

이런 두려움을 없애 버리기 위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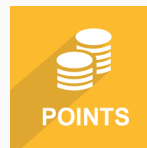
금융기관을 통해서
가상화폐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요?
국가가 이미 허락한 방식으로 말입니다



정부도 금융기관도 허락하는 규제친화적으로 접근

↗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
안전성의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

선불포인트 서비스 라는 것이 있습니다 !



돈을 포인트나 상품권 등으로 바꿔서 돈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.

선불포인트 서비스의 핵심은 돈과 포인트가 1:1 로 생성, 관리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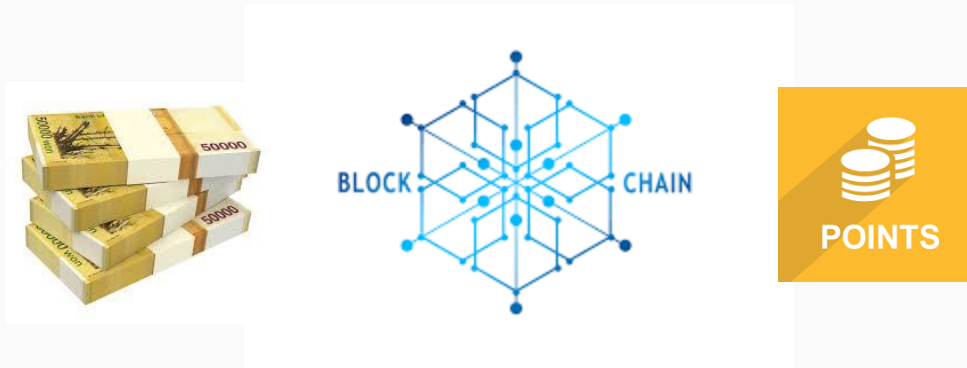


실제 돈을 예치하고 그 금액만큼
포인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



그런데 예치금을 기업 내부에 뒀서 자주 문제가 발생합니다

여기서 잠깐.. 아이디어를 내볼까요 ?
선불포인트 서비스는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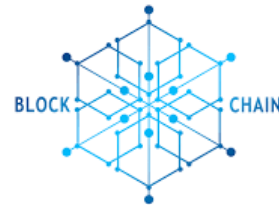
그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
선불포인트 서비스를 만들면 문제가 없겠네요 !

그래서 우리는  원화와 쌍둥이라 WONT(Won Twin) 라고 부릅니다
블록체인 기반의 선불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!

- ① 선불금융서비스 규제에 따라
- ② 금융기관이 예치금을 관리하여 포인트를 생성하고
- ③ 포인트의 거래는 개인 간 전자지갑을 통해서 하는

혁신적인  블록체인 기술로 생성,관리
선불금융포인트 입니다 !

즉 정부의 금융규제와 프로세스를 충실히 준수하며



서비스와 기능구현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합니다

즉 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 장점을 더합니다



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!

참고로..

규제에 충실한 선불금융서비스가
또 하나 있습니다!

바로 CBDC 입니다!





일종의 국가가 발행한 선불포인트입니다!



자. 그럼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

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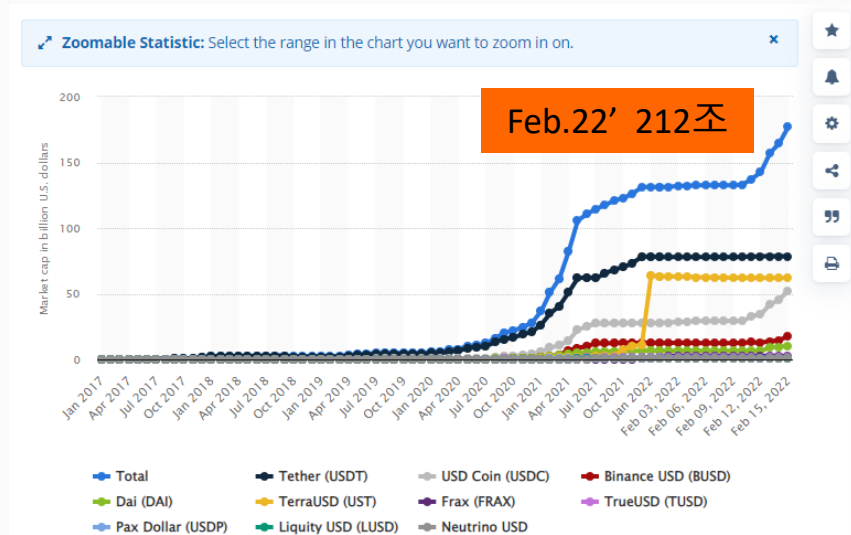
- ① 선불포인트랑 거의 똑 같습니다  당연히
블록체인 기술로 생성,관리
- ② 법정화폐와 1:1 로 생성되고 거래됩니다
- ③ 단, 발행 및 관리주체가 민간입니다 !


국가가 해야 할 화폐발행 및 관리를 민간이 합니다 !
이거 때문에 국가가 쉽게 허락하기 어렵습니다

여기서 잠깐..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주요 거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



• Total Cryptocurrency Market Cap. (2022. Feb.)



• Major 10 Stable Coins Market Cap. (2022. Feb.)

블록체인 업계는
태생적으로 탈중앙화에 꽂혀 있어 (출생 비밀)
금융기관을 배제합니다 !



그래서 사사건건 국가와 부딪히며
국가는 규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!



미국은 연방은행 자체가 일종의 민간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
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에서 발행, 성행합니다 !

왜 국가는 가상화폐의 도입을 주저하나 ?

① 민간이 화폐를 주조하고 이에 따른 금융 통제 불가능

(민간기업 마음대로 화폐를 주조하고 신용 창조에 따른 금융정책 무력화 우려)

②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기술로 금융기관을 배제

(국가의 대리인인 금융기관을 배제한 철학 및 기술로 금융시장에서의 무정부화 우려)

③ 기존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성에 대한 우려

(가상화폐의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화폐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불가능함)

각국의 규제정책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 됨

국가가 선호하는 가상화폐의 방향은 ?

① 정부만이 화폐를 주조하고 관리하는 금융통제 기능 확보

(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의 보급을 위한 개발 진행 중)

②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립적 금융시스템 필요

(국가의 대리인인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중립적 성격의 금융시스템 필요)

③ 가상화폐의 장점을 극대화 한 규제친화적 서비스

(블록체인의 저비용 구조의 금융 및 송금, 거래시스템 필요성 인지 및 검증 시도)

블록체인의 장점을 수용한 규제 친화적인 금융서비스 필요

참고로 최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방향을 보면

- ① 코인 발행자는 코인 발행량 만큼 준비금(예치금) 확보
(매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과 준비금의 시장가치는 동일해야 함)
- ② 준비금과 발생사 자산은 분리되고 공인 예치기관에 예치
(미국 주 혹은 연방정부가 공인한 예금기관 혹은 수탁기관이 준비금을 보관함)
- ③ 준비금은 미 국채로 구성되며 매월 회계감사 진행
(준비금은 장단기 미국 재무부 국채와 역 RP로 구성되며 매달 회계감사를 받음)

* 일본, EU 또한 준비금의 경우 정부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이 예치 및 관리함

왜 블록체인 선불포인트(WONT)를 해야 하나

① 국가가 허락한 최초의 블록체인 금융서비스(Stable Coin)

(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:위탁테스트로 허가 받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)

② 거래당사자 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중립적인 금융플랫폼

(금융기관이 합의 노드로 참여,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중립적플랫폼 공급)

③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호환성 확보

(기존 테더나 USDC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공급 가능성)

국가가 허락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당장 서비스 할 수 있음 !

즉 금융기관이 **선불포인트를 생성, 관리합니다 !**

- ①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활용해 예치금을 관리하며
- ② 예치금의 이자로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고
- ③ 블록체인 선불포인트로 화폐 기능을 구현합니다

선불포인트에 가상화폐의 장점을 더했습니다 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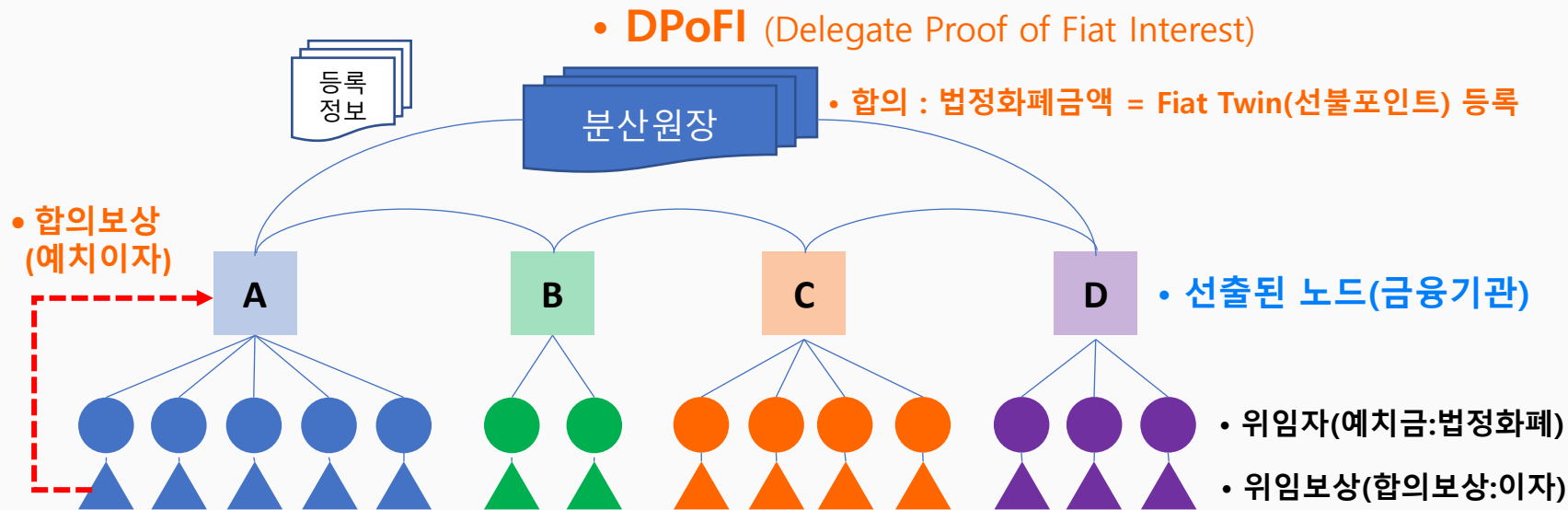
이제 선불포인트도 가상화폐와 연동이 가능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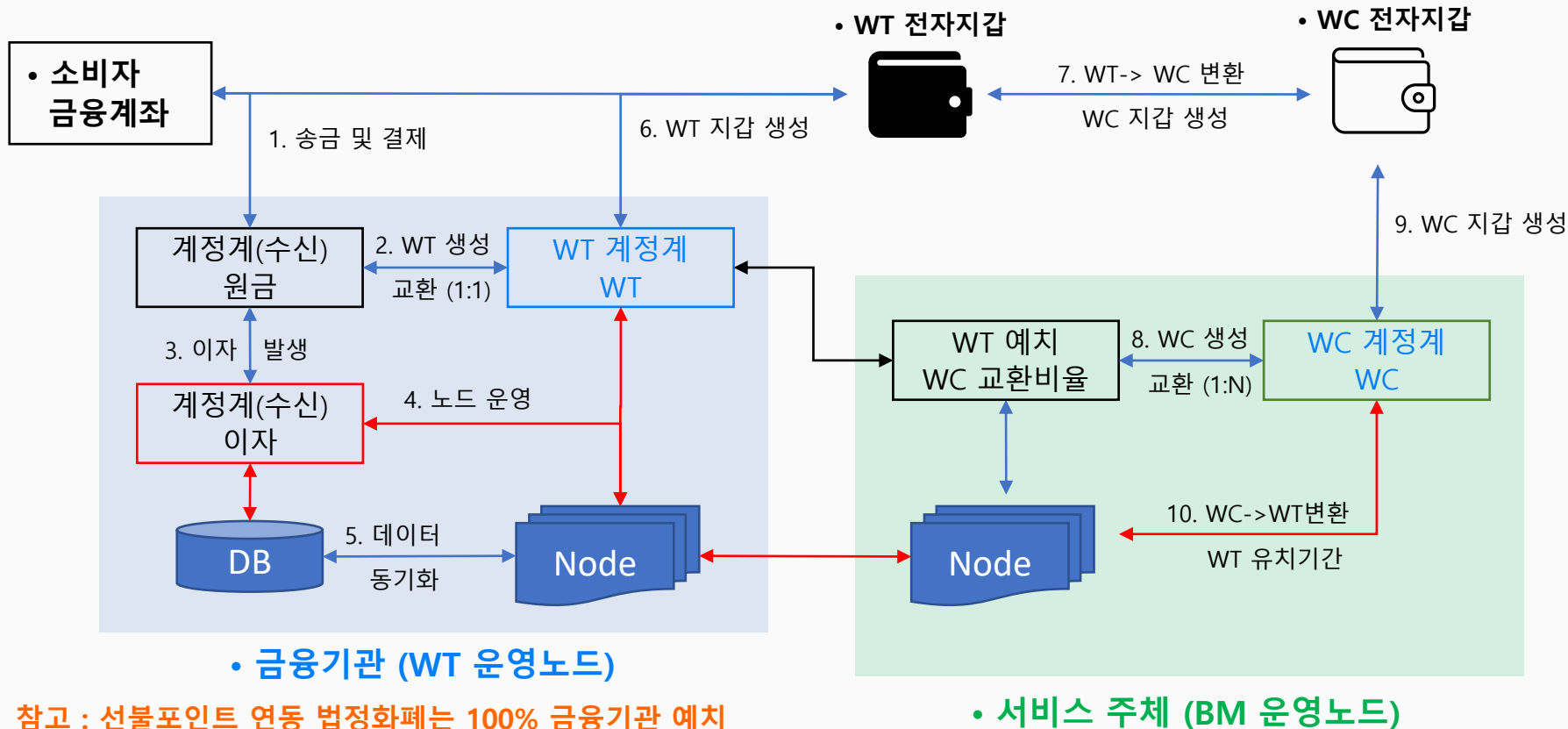
전자지갑 간 거래, 스마트컨트랙트 활용, 기존 가상화폐와 연동, 교환 등

자 이제.. 특허기술 (DPoFI) 들어갑니다 !

금융기관이 예치금을 관리하며 노드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선불포인트를 생성, 관리합니다 !



■ 법정화폐(Won) = WT(Won Twin) = WC(WT Convertible) 생성 Data Process



참고 : 선불포인트 연동 법정화폐는 100% 금융기관 예치
오픈뱅킹 선불충전금 API(정보조회) 활용

그러면.. 국내외 금융시장을 볼까요 ?

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간편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시장

(네이버, 쿠팡, 스타벅스 등 기업 포인트와 전자상품권 등)

②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반의 P2P 송금 및 결제 수단

(2.5~5%의 금융수수료 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 등)

③ 강화되는 규제 정책 및 독과점 문제 해결

(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따른 소비자보호 및 독과점 문제 해결 필요)

금융서비스는 위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!

블록체인 선불포인트는 **해결방안**을 제시합니다 !

① 누구나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선불포인트 서비스 제공
(진입장벽을 낮추고 클라우드 기반의 종량제 서비스 제공)

② **블록체인 기반의 P2P 송금 및 결제서비스 실험**
(혁신적인 블록체인 합의방식에 따른 규제 친화적인 선불포인트 생성 및 활용)

③ **기존 선불포인트와의 높은 호환성 및 소비자 보호**
(예치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이를 통해 기존 선불포인트와 호환성 확보)

블록체인 선불포인트는 **중립적 금융 인프라**입니다 !

블록체인 선불포인트는 무엇을 대체하나 ?

① 실제 거래 및 송금에 사용가능한 화폐 기능 확보

(가격변동성을 제거하여 법정화폐와 동일한 기능 및 서비스 가능)

② 현재 사용 중인 선불포인트 및 간편결제의 효율적 대체

(네이버포인트, 백화점상품권, 스타벅스 등 선불지급서비스 대체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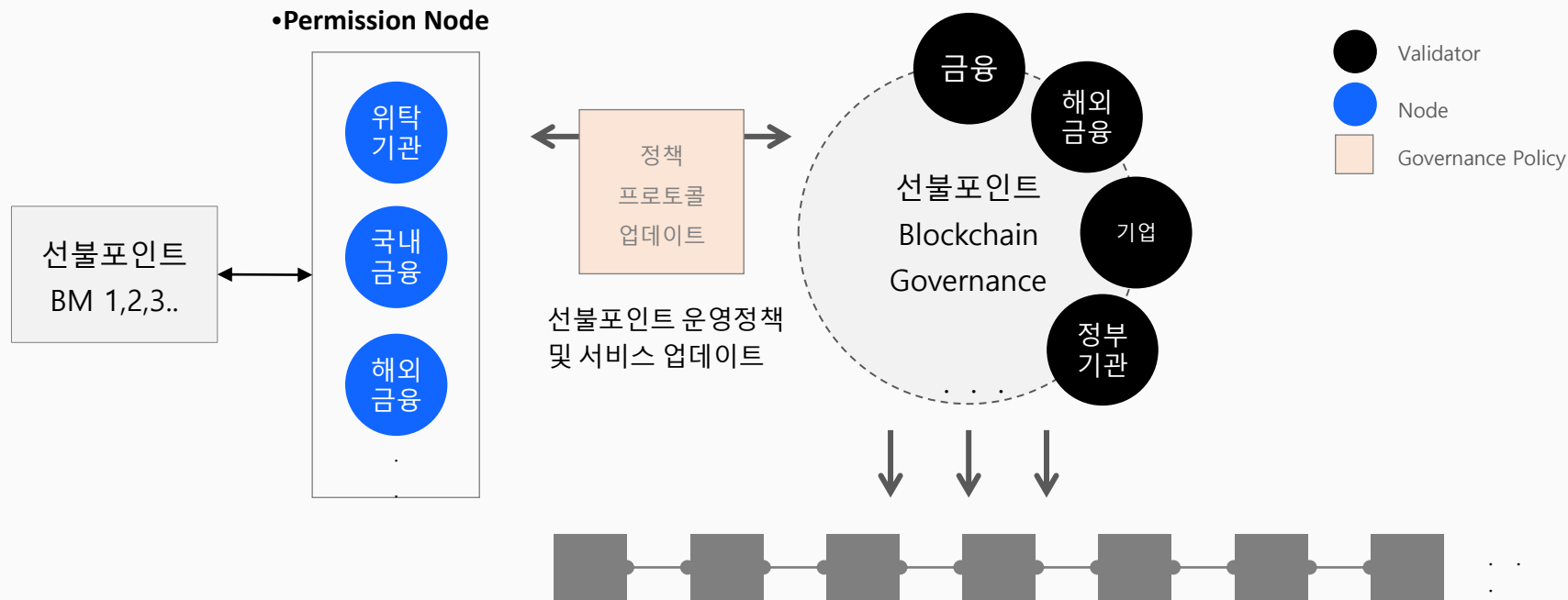
③ 모든 블록체인 서비스의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 가능

(블록체인 기능을 100% 충족시키는 화폐기능의 확보로 다양한 BM에 적용 가능)

스테이블 코인 최초로 실 거래에 적용 가능한 금융서비스 !

■ 협업 내용 : WONT Eco-System

- 1) 예치금 수납 및 선불포인트 생성, 검증에 필요한 기업들을 Validator로 참여 제안 (협업 및 파트너 선정)
- 2) 합의노드는 금융기관만 운영하며 사업초기 위탁금융 관계사들로 구성하고 향후 국내외 금융기관에 오픈
- 3) 선불포인트 Governance는 중립적인 인프라 운영을 위해 정부기관 참여 필요 (금융기관+혁신기업+공공기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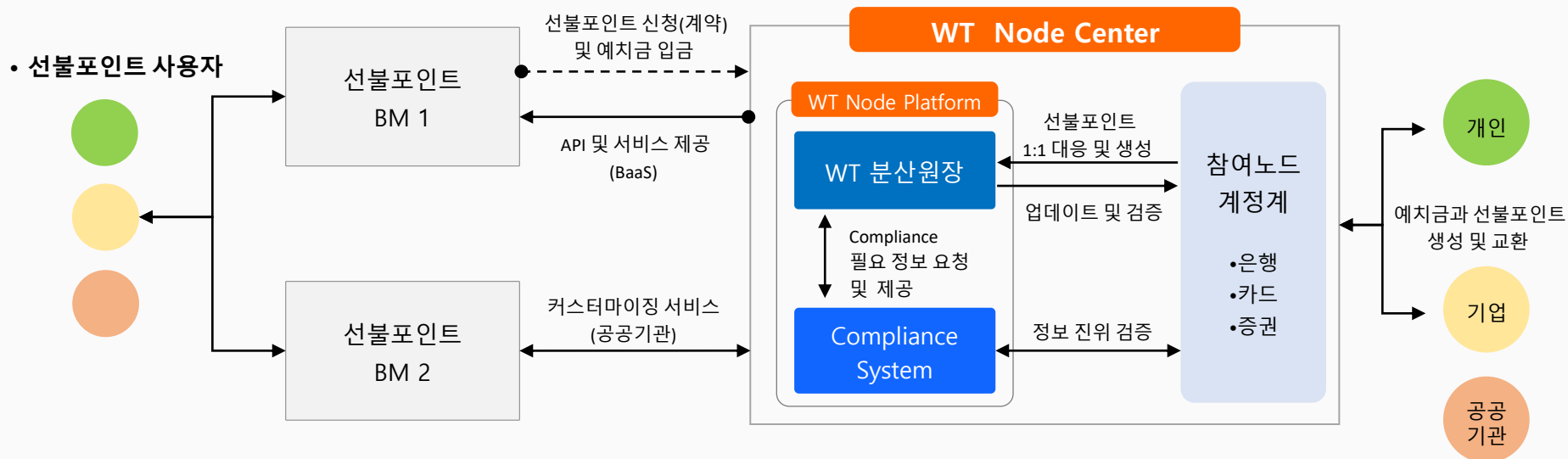


■ 협업 내용 : 서비스 구조

WT Node Center : 블록체인 기반의 선불포인트를 생성 및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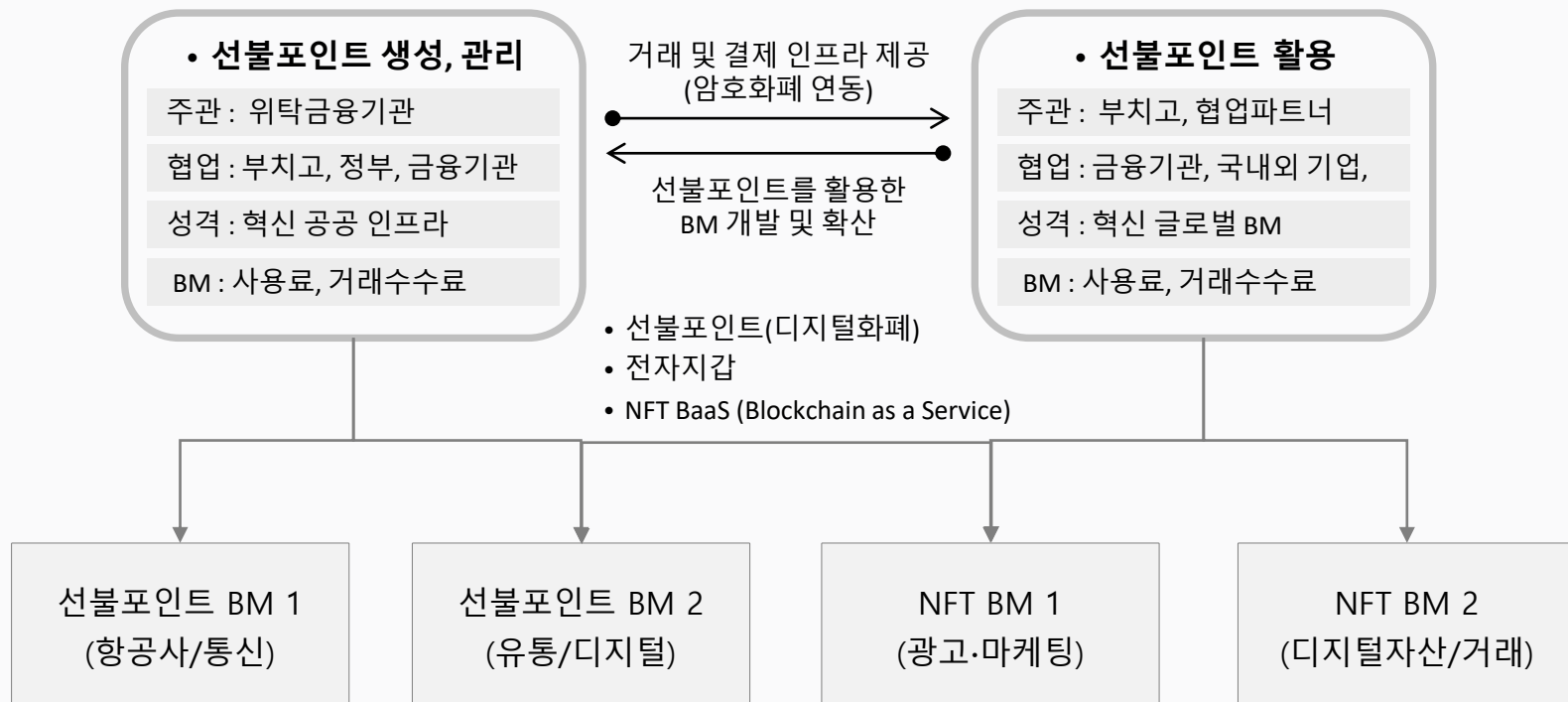
WT Node Platform : 위탁금융기관 Buchigo(파트너)가 공동 운영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(노드/합의/보상/준법시스템 등)

선불포인트 BM : 클라우드 기반의 선불포인트를 사용하는 제3자 공공기관이나 기업, 개인의 Business Model



* 선불포인트 참여(운영) 노드는 단계별로 외부 금융기관에도 개방

■ 협업 내용 : 사업 협력 방안



- 1)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및 BM 개발, 공급을 통한 국내외 협업 및 글로벌 공유사업 전개 (네트워크 효과)
- 2) 협업 및 단계적 사업전개를 통한 빠른 시장 진입 및 Market Fit 달성

A 기업 마케팅(보상)

- A사 고객에서 광고를 통한 포인트 보상
(NFT를 활용한 미션 광고)



A 선불포인트 계약

- 예치금 입금
- 선불포인트 생성

블록체인 선불포인트 플랫폼

예치금

선불포인트

-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
(KYC / AML)

- 충전을 통한
포인트 생성



- 포인트
P2P 송금

-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
(KYC / AML)



- 포인트
P2P 송금

- 포인트로
B 상품구매
(P2P결제)

B 선불포인트 계약

- 예치금 입금
- 선불포인트 생성



B 가맹점(상거래) (간편결제)

C 선불포인트 계약

- 예치금 입금
- 선불포인트 생성



C 금융서비스 (송금)

현금 흐름
 포인트 흐름

포인트 플랫폼

1. 플랫폼 사용 계약

- 서비스 선택
- 계약체결



2. 시스템 준비

- 클라우드 준비
- 시스템 연동



3. 사용 테스트

- 사용 시나리오 준비
- 실행 및 피드백



4. 클라우드 제공

- 플랫폼서비스 제공
- 유지,보수

기업 마케팅

1. 선불포인트 계약

- 선불 계약 체결
- 전자지갑 생성



2. 선불포인트 생성

- 지정계좌로 송금
- 선불포인트 생성



3. 기업 마케팅

- 이벤트 생성
- 소비자 보상 설정



4. 실행 및 보상

- 광고마케팅
- 소비자 보상(지갑이체)
- (by 스마트컨트랙트)

가맹점(상거래)

1. 선불포인트 계약

- 선불 계약 체결
- 전자지갑 생성



2. 포인트 상품 구성

- 판매상품 설정
- 포인트 판매가 설정



3. P2P 포인트 결제

- 지갑간 P2P 결제
- QR 결제



4. 포인트 교환(현금)

- 세금처리
- 현금 교환(계좌이체)

개인간 포인트거래

1. 지갑 생성

- 약관 동의
- 전자지갑 생성



2. 포인트 생성

- 예치금 충전
- 포인트 보상(이체)



3. 포인트 거래

- 포인트로 상품결제
- 포인트 송금(이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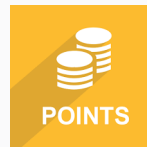


4. 포인트 교환(현금)

- KYC / AML
- 현금 교환(계좌이체)

잠깐 ! 혹시..

WONT 를 지역화폐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?



모든 지역화폐는 예산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자발적 순환시스템이 아닙니다!

가상화폐는 제3자의 개입과 비용없이 지속(자발)적으로 동작을 합니다

여기서.. 잠시 지역화폐 시장(국내)을 볼까요 ?

- 발행규모
20조 2,000억



- 할인율 지원
2조 (10%)

- 국비
1조 2,522억



- 지방비
7,678억



자료 : 2021년 행정안전부

- 수수료 등
부대비용
1,298억



기존
선불포인트는
전체 발행액의
10% 가 있어야
작동을 합니다
↪

블록체인의 특징인 탈중앙화가 불가능

따라서..
지역화폐는
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해도



블록체인의
장점을 전혀 살리지 않은
반쪽 서비스입니다!

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죠? 상용DB기반이 이 경우 더 효율적인데... 좀 알려줘요!

그럼 블록체인 기반의 선불포인트는 각 경제주체에 어떤 효용을 가져 올까요 ?

- ① 포인트 서비스 기업 : 결제수수료 2~5% 절감 및 1~2% 수수료 수익
- ② 지자체 : 예산없이 자생적인 다양한 선불금융서비스 공급 가능
- ③ 금융당국 :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 및 보급
- ④ 금융기관 : 변화한 환경에 최적화 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

아마도 블록체인의 규제문제를
해결할 단초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!



WONT 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!

언제까지 남의 기술과 BM을 카피할 겁니까 ?
한국도 이제 블록체인을 선도할 때가 됐습니다 !

WONT 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!
규제이슈를 해결한
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말입니다.

- Contact US : info@buchigo.com

금융기관 및 기업들의
많은 관심과 협업을 부탁드립니다

■ WONT(WT) 독창성 및 차별성 : 기존 선불포인트 vs WONT

도입 기업	기존 선불포인트	블록체인 선불포인트	기대 효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 기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라이선스 필요(5억~20억) 선불시스템 자체 구축 복잡한 규정 및 대응방안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라이선스 필요 없음 (사용계약) 선불시스템 SaaS 사용(종량제) 선불서비스에 집중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불포인트서비스 진입장벽 낮춤 다양한 선불포인트 서비스 기획 및 개발 가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스템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축 초기 도입 비용 증가 대기업만 서비스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클라우드 기반의 종량제 서비스 서비스 비용 예측 가능 누구나 서비스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빠르고 경제적인 서비스 도입 예측 가능한 비용 편익 분석 선불서비스 시장 기반 확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결제망 수수료 지급 (2~5%) 선불포인트간 호환 불가 결제수단 : 결제 단말(서비스) 위주 자동화 거래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2P 결제로 수수료 절감(0.3~0.5%) 선불포인트 간 호환 가능 결제수단 : 개인 모바일 전자지갑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 거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래비용 절감에 따른 경쟁력 확보 선불포인트 네트워크 효과 달성 모바일을 통한 개인화 된 결제 환경 다양한 자동화 거래로 효율 극대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금융서비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범용 금융서비스(예치금 계좌 관리) 금융규제 사각지대 연관 금융서비스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치 및 선불포인트 생성,관리,검증 선불 충담금 금융기관 관리 다양한 연관 금융서비스 제공 (예치금 대출, 예치금 활용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 정책(선불금융)에 부합 규제 친화적인 신규 선불서비스 제공 새로운 연관 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세대 핀테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앙집중화 된 거래 환경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대응 불가 금융거래 수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2P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 환경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연동 가능 새로운 금융거래 수단 및 서비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탈중앙화 된 금융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연동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제공

■ WONT(WT) 독창성 및 차별성 : 암호화폐 vs 위안화 CBDC vs WONT

도입 기업	스테이블 코인(USDT)	디지털 위안화(CBDC)	WONT (Won Twi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• 유통 중인 현금 • 발행주체 : 민간 기업 • 민간기업 단일 운영 체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 형식의 법정화폐 • 유통 중인 현금 • 발행주체 : 중앙은행 • 중앙은행-상업은행 이중 운영체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블록체인 기반의 선불포인트 • 유통 중인 현금 • 발행주체 : 금융기관 • 금융기관-민간기업 이중 운영체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자산 및 준비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자산 : 달러 • 준비금 비율 : 1:1 (신뢰하지 못함) • 신용 : 민간 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자산 : 없음 • 준비금 비율 : 1:1 (신뢰) • 신용 : 국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자산 : 유통 중인 현금 • 준비금 비율 : 1:1 (신뢰) • 신용 : 금융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포 기관 : 민간 기업 • 이자지급 유무 : 없음(기업소유) • 익명성 : 완벽한 익명성 • 타 암호화폐 연동 가능(블록체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포 기관 : 지정 금융기관 • 이자지급 유무 : 없음 • 익명성 : 통제 가능한 익명성 • 타 암호화폐 연동 불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포 기관 : 노드 운영 금융기관 • 이자지급 유무 : 있음 (노드 운영비) • 익명성 : 통제 가능한 익명성 • 타 암호화폐 연동 가능(블록체인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 거래 사용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 거래 : 불가능(현금과 불일치) • 오프라인 거래 : 불가능 • 지갑간 거래 (P2P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 거래 : 가능(현금과 동일) • 오프라인 거래 : 가능 • 지갑간 거래 (P2P) or 실물카드(NFC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 거래 : 가능(현금과 동일) • 오프라인 거래 : 불가능 • 지갑간 거래 (P2P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이 코인의 발행, 유통, 폐기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사후 회계감사를 받음 (불완전 신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은행이 위안화 발행, 유통, 폐기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상업은행이 위안화를 태환 제공함 (완전신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기관이 현금과 FT의 발행, 유통, 폐기 등 전 과정에서 1:1 폐깅을 검증, 보증함 (완전신뢰)